

프랑수와 리스토리 François Ristori

2017. 7. 14 - 8. 11

프랑수와 리스토리와의 엄격한 회화적 요구

베르나르 블리스텐느 Bernard Blistène

1

회화에 대해 질문한 작가들 중에 프랑수와 리스토리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최근 그의 죽음은 1960년대 후반 네오 아방가르드의 예술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실천의 타당성과 독창성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리스토리는 영원히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한 다양한 모임들과 토론들은 나에게 그의 탐구들의 독창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좌절하지 않고, 연구들을 발전시켜가는 고집스러움은 회화의 개념적 생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 개념적 규칙들의 해체를 시도하였던 바로 그 고집스러움은 그를 포함한 동시대 작가들의 계보에서 까다로운 입장과 위치를 점하고자 한 그의 의지를 증명한다.

그와 동시대의 몇몇 작가들의 작업들처럼, 리스토리의 작업은 실제로 엄밀한 프로토콜(매뉴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작가들의 프로토콜들 사이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리스토리의 프로토콜은 캔버스와의 관계와, 작품이 놓이게 될 공간과의 관계에서 회화적 실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토대로 방법론의 확립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프로토콜은 뷔렌, 모세, 파르망티에, 토로니 같은, 물론 루토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한 의문에 집중하는 엄밀한 방법론적 (이것을 회화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자) 요청을 표명한 작가들의 계보 속에 위치를 점하고 있다.

리스토리의 이러한 방법론은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의 방법론은 또한 앙드레 카데르를 비롯한 작가들의 방법론과 맞닿아 있다. 이들의 방법론은 회화의 모든 주관성을 거부하는 회화적 수행, 즉 필연적이고 명백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회화적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리스토리는 연역적 원리에 기반을 둔 규칙을 구성하였다. 이 연역적 원리의 독창성은 회화와 드로잉, 캔버스와 벽,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통합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많은 동시대 작가들이 선택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식상해진 회화적 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된 방법론 위에 수립된 작품의 원칙을 위한 자리는 아직 남아 있는가? 독창적인 작업을 위한 가능성, 혹은 새로운 입장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나에게 리스토리의 작품은 특이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작업의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선택들에 있다 : 아크릴 물감은 물론, 형태 자체, 모든 작품들 속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리스토리의 작품의 형태적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가 여러번의 환원적 재현 과정 즉, 일종의 단순화 과정을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형태의 독창성은 한 눈에 지각된다.

2

1969년과 1970년 사이의 상황을 보자. 일부 화가들은 그들만의 프로토콜을 결정하였다. 뷔렌은 그의 프로토콜을 "도구"라고 하였고, 루트는 "정의-방법"이라고 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리스토리는 제한된 가늠짐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다. 그에게는 이것이 그의 작업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확장시키는 것이며 그 효과를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리스토리의 방법론은 이 잠재성이 캔버스든 벽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잠재성은 벽에 직접 그리는 작업이나 나아가 작업을 수용하는 모든 매체들을 활용한 작업을 위해 작가가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개입들 중에서는 바닥에서도 실현된 경우가 있음을 보라.

이 시점에서, 프랑수와 리스토리가 명확하게 정의한 바로 그 작업의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 "혼적-형태는 표면의 전체성을 확보할 때까지 미리 선행해서 확립된 짜임인 육각형으로부터, 파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혼적-형태가 서로, 교차적으로, 하나 다음에 하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생겨나고, 동일한 과정에 따른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결정된 원칙에 따라 항상 동일하게 수행되는 행위-도안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바로 이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각형의 각 변에 개입하면서, 두 꼭짓점은 때로는 육각형의 내부에 때로는 육각형의 바깥쪽에 위치지어진다. "

필자는 리스토리의 이 텍스트를 좋아한다. 나는 매우 복잡한 과정 속에서 모든 서술의 가능성을 결국은 넘어서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자 한 그의 시도들을 좋아한다. 필자는 요컨대, 그가 글쓰기 행위와 회화적 행위의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을 좋아한다. 작가가 작업의 모든 과정을 말한 그 순간에 작품을 직접 보고자 하는 욕구가 시작되고 표출된다. 마치 언어의 힘에 대한 이미지의 절대성과 같은.

언어는 그 자신의 고유한 덮에 스스로 빠진다. 리스토리는 가능한 한 명확한 방식으로 작업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은 기하학적이고 가장 단순하며 동시에 미묘하다. 이 기하학적인 과정은 다양한 변용들을 만들어 낸다. 이 변용들 덕분에 반복성의 원칙은 유사성과 특히 현저한

차이들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현저한 차이들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지각 불가능하다.

3

리스토리의 예술에는 보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당신이 지각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획일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려진 선의 위치와 길이에 따른 뉘앙스들을 이해한다. 리스토리는 제한되지 않는 내적 분절화의 시스템을 통해 항상 새로운 잠재성을 생산한다.

리스토리는 작업이 실현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명확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컨텍스트와 연관된 타당성을 탐구한다. 아르노 르페브르가 2006년 1월 25일자 편지에서 지적인 태도로 "스스로 설명하는 작업" 라고 한 것처럼, 작업의 의도에 대한 서술을 넘어서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탐구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자주 이야기한 문장의 형식을 차용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말할 수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봐야한다.

따라서 리스토리의 작업은 미세한 형태적 차이를 드러내고 이끄는 조합의 원리를 내포한다. 리스토리의 작업에는 게임적인 부분이 있고 유머가 있다. 프랑스 국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색채들을 선택한 것을 보라! 초기 작품의 구조와 관련하여 일련의 산만한 듯 들쭉날쭉한 선들의 크기를 다시 보라. 벽이나 유리창 위에서 지속되고, 이미지들 사이를 채우는 공간으로써 그림들 사이를 결합시키고, 각 그림들 사이를 거미줄처럼 엮는 "흔적-형태"를 다시 보라. 또한 리스토리가 그의 개인전들에서 실현한 다양한 설치들과, 전시 공간에서 어떻게 작업들을 배치했는지를 보라. "제안-회화"가 작품이 실현된 공간속에서 어떻게 관통하고 감행되는지를 보라. 동시대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작업을 제한했을 때 리스토리가 어떻게 독특한 예술적 진보의 여정을 구축하고자 했는지 보라.

4

나는 다시 리스토리의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1974년 잡지 'Flash-Art'를 통해 발표된 중요한 텍스트를 호명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예술과 예술가들은 전략들을 강요한다. 반대로, 리스토리의 "회화적" 작업은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예술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에 내재한 특성들과 제한된 여건에서 리스토리의 작업은 해방될 것이다. 예술적 최종 결과물은 창작의 고유한 과정의 단순하고 순수한 제작일 뿐이다. "보는 것(보야하는 것)"은 고유한 실재 그 자체이다." 이것이 프랑수와 리스토리 작업이 요구하는 엄격함이다. 리스토리는 그의 작업을 통해 회화의 집요하고 불합리한 차원을 다시 부여하려고 한다. 이 회화의 특수성은 때로는 침묵하게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리스토리의 작품은 여전히 발견되어야 할 지점이 남아있다. 이봉 랑베르와 아르토 르페브르, Corner of the Mirror 또는 Galerie D. 에 열린 그의 전시회는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장소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리스토리의 회화적 생산물에 대한 통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평가와 예술 기관들은 리스토리 작품의 깊은 독창성과 강한 효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작품을, 그 자체의 리듬을 역사적으로 재인식하는 일이다. 나는 그의 리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리스토리와 질 들뢰즈의 사유 사이에 자리한 확연한 연관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 "예술은 이 역설적인 반복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유도 마찬가지로인가?" 재실행하기,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기.